

광주 42개 모든 인문계 고교 서울대 합격생 첫 동시 배출

올 147명 합격 ... 전남은 89명

광주·전남지역 수험생 중 서울대 합격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올해 시 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체 인문계(42개교) 고교가 동시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종 합격자 가운데 광주 출신은 147명(수시 100명, 정시 47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132명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남 역시 지난해 82명보다 7명 많은 89명(수시 63명, 정시 2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자 3천 276명의 4.4%(광주), 2.7%(전남)에 해당한다.

광주의 경우 ▲2006학년도 129명 ▲2007학년도 130명 ▲2008학년도 132명 등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수능시험 참가 학생 대비 서울대 합격비율에서도 2007년 전국 평균은 3.29%에 불과했으나, 광주는 4.17%, 2008년 4.30%(전국 평균 3.32%), 2009년 5.02%(전국 평균 3.09%)로 올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성과는 서울대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9%(289명) 가량 축소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체 인문계 고교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는 광주지역 고교가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면서 "서울대 합격생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됐다고 할 순 없지만, 상위 학생이 전체 고교에 두루 분포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도 지난 2007년 51명에 불과했던 서울대 합격자가 지난해

82명에 이어 올해엔 89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합격자 배출 학교수는 도내 전체 인문계 고교 89개교 중 37개교이며,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생을 배출한 학교는 담양고(1명)와 광양백운고(2명) 등 2개교다.

전남에선 또 서울대가 이번 정시부터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영어 등 전공)로 모두 9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상위 성적의 예비 후보자가 많은 만큼 5일 이후 발표하는 서울대의 추가합격자 발표에서 최종 합격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서울대 합격자 증가는 도교육청과 일선학교 진학 담당교사들로 구성된 진학지원팀의 다양한 진학정보 분석과 제공, 진학지도 자료 개발·보급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특히 일선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명문고교 육성 정책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가량 증가해 목표액 46억8천만원 대비 101%를 달성했다. 광주는 목표액 20억원에 5천900만원이 모자랐다.

이번 캠페인의 참여 건수는 광주가 1만3천568건으로 지난해 1만163건에 비해 3.4%, 전남은 1만2천472건으로 지난해 1만2천953건에 비해 13.8%가 늘어 개별 소액 기부자들의 나눔 실천이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산업기반이 열악한데다 경기침체마저 가속화돼 격정이 많았는데 목표를 넘어섰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해 나누고 배려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 97℃ · 전남 101℃

경제한파에도 사랑의 온도 뜨거웠네

'희망2009-캠페인' 모금액 66억6,597만원 역대 최고

경제한파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온정은 따스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희망2009-나눔캠페인' 모금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광주가 19억4천96만원(사랑의 행복 온도 97℃), 전남이 47억2천501만원(101℃) 등 모두 66억6천597만원이 걸렸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모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캠페인 때의 62억9천800만 원보다 3억6천797만 원 많은 것이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이전 캠페인의 참여 건수는 광주가 1만3천568건으로 지난해 1만163건에 비해 3.4%, 전남은 1만2천472건으로 지난해 1만2천953건에 비해 13.8%가 늘어 개별 소액 기부자들의 나눔 실천이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산업기반이 열악한데다 경기침체마저 가속화돼 격정이 많았는데 목표를 넘어섰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해 나누고 배려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모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캠페인 때의 62억9천800만 원보다 3억6천797만 원 많은 것이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0분 해질 18시 03분 달돋이 11시 22분 달질 01시 03분

겨울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 도시 | 날씨 | 기온 |
|-----|-----------|-------|
| 광주 | 흐리고 비온뒤 맑 | 6/12℃ |
| 목포 | 흐리고 비온뒤 맑 | 6/11℃ |
| 여수 | 흐리고 비온뒤 맑 | 5/9℃ |
| 완도 | 흐리고 비온뒤 맑 | 5/10℃ |
| 구례 | 흐리고 비온뒤 맑 | 2/11℃ |
| 해남 | 흐리고 비온뒤 맑 | 4/11℃ |
| 장흥 | 흐리고 비온뒤 맑 | 4/11℃ |
| 고흥 | 흐리고 비온뒤 맑 | 4/10℃ |
| 순천 | 흐리고 비온뒤 맑 | 5/12℃ |
| 영광 | 흐리고 비온뒤 맑 | 4/10℃ |
| 진도 | 흐리고 비온뒤 맑 | 4/10℃ |
| 전주 | 흐리고 비온뒤 맑 | 5/11℃ |
| 남원 | 흐리고 비온뒤 맑 | 2/11℃ |
| 육산도 | 흐리고 비온뒤 맑 | 7/10℃ |

|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동풍 | 0.5~1.5m | 목포 07:28 | 00:03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풍 | 1.5~2.5m | 여수 02:11 | 08:08 |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4(수) | 5(목) | 6(금) | 7(토) | 8(일) | 9(일)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3/13 | 2/12 | 2/12 | 2/11 | 2/12 | 2/12 |



오는 2012년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가 토지보상 지연 및 사후 활용 방안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71년 지어진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광주교도소 전경. /위직림기자 jrjwi@kwangju.co.kr

수완~첨단 임방울대로 개통

수완지구 입주 활성화·하남산단 체증 해소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임방울대로'가 차공 3년여만인 3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지난 2005년 11월 착공된 이 도로는 광주시가 427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용지보상은 한국토지공사, 공사 시행은 시 종합건설본부가 각각 맡았다.

개통 도로 구간에는 국도 1호선 북문로와 직접 연결하는 4개의 램프가 설치돼 광주 북부지역과 장성 방면이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수완지구와 첨단지구가 직접 연결돼 수완지구 입주가 활성화되는 한편 하남산단 진입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산단 출입차량의 교통 체증 및 첨단지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도로 개통에 따라 기존 하남산단 진입도로~첨단지구 간 2차선 도로는 폐쇄되므로 신설 도로나 국도 1호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후4기자 who@

광주시내 중·고교 15곳

사물함 비용 학생에 전가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시설인 교실내 사물함 설치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2일 시 교육청에 대한 교육현안 질문에서 "J중, D여중, K여중, D여고, S고, K고 등 중학교 7곳, 고등학교 8곳 등 15곳이 학생에게 사물함 설치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경우는 조사 대상 142곳(중 81곳, 고교 61)중 중학교 37곳, 고교 26곳 등 63곳(44.4%)이었으며,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48곳(중 33곳, 고교 15곳)으로 33.8%였다.

D여중은 학생과 교육청이 비용을 보태 구입했으며 학교와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구입한 곳은 8곳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

'5·18 사적' 광주교도소 이전 난항

토지 매입가 마찰 ... 보상을 35% 그쳐

사후 활용방안 '구 도청별관' 재연 우려

광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 매입가를 둘러싼 토지소유주들과의 이견 차로 인해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교도소의 경우 5·18 사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옛 전남도청 별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교정청에 따르면 오는 2012년께로 예정된 광주

주교도소 측은 보상작업 지연으로 인해 새 교도소 착공 시기가 당초 2010년 초에서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소 이전 후 건물과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지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인 현장이자, 구속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제2의 도청 별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남도청 별관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건물 철거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지난 1971년 북구 문흥동에 들어선 광주교도소는 오는 2012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이전을 목표로 2007년부터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도소는 육군 31사단 예비군 훈련장 주변인 삼각동 상월산 기슭의 땅 28만6천㎡를 매입, 현재 2천명인 수용 규모를 1천500명으로 줄여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도 전략이다
자기계발 전략파트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대학 전략
2. 자기계발 전략
3. 취업 전략
4. 진로 전략

2009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1. 대학 소개
2. 모집 학과
3. 지원 방법
4. 입학 상담

입학상담 대표전화: 1677-26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www.kpu.ac.kr